

초등입학 앞둔 내 아이 '통합형 교육' 시켜볼까

놀다 보니 어느새 영어·수학 익혔네

부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떤 것을 배우고 학교에 가야할지 고민한다. 한글을 기본이고 수학, 영어도 어느 정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다. 게다가 다른 집 아이들이 피아노나 태권도까지 배운다면 마음이 더 급해진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면 비용은 돌체치더라도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최근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린 이색 통합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어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발레를 가르치고, 레고 놀이 도구를 이용해 수학의 개념을 심어주는 등 복합적인 형태의 교육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테면 '놀면서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남대 김영옥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학문의 융합과 조화라는 시대적 조류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있는지, 또 왜 즐거워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질적으로 아이와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통합형 프로그램의 교육 방식을 알아보자.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3~5세 아이들이 영어 발레를 배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영어 피아노

영어동요 매주 한 곡씩 배워 듣기·말하기 자연스럽게 습득

6~9세 가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는 물론 영어 동요를 함께 가르친다. 매주 한 곡의 영어 동요를 배우고 시청각 교실에서 원어민들의 표준 발음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하고 따라부르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듣기·말하기 훈련을 습득하게 된다. 어느 정도 노래가 익숙해지면 반주법을 배운다.

이처럼 매주 한 곡의 영어 노래를 배운다면 노래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장을 함께 익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CD를 구해 집에서 계속해서 듣는다면 아이들이 영어 동요를 흥얼거리게 된다. 무엇보다 영어를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장점. 피아노를 치면서 영어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아이들의 자신감은 두 배로 오를 수 있다.

영어 피아노 교습법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주)잉글리시피아노 광주지사 김태민(29) 실장은 "피아노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는 장점 때문에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며 "현재 광주지역 21개 피아노 학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고 수학

장난감으로 도형 만들면서 수·길이 등 기본 개념 정립

'레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공부보다 장난감이다. 4~7세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수학의 기본 개념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레고 수학의 골자다.

또 수학의 기본 개념 정립을 통해 아이들은 논리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게 된다.

레고 조각들을 조합해 동물 모양을 만들었다가 고정하자, 여러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긴 다리, 가장 짧은 팔, 가장 긴 목, 가장 작은 발을 가진 것이 어떤 동물인지 생각해 한다면 길고 짧은 등의 비교 개념을 절로 배울 수 있다.

몇 개의 조각을 사용해 만들었는지, 몇 개를 빼보면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알아본다. 게임과 놀이를 통해 탐구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등 수학적 사고력을 쉽게 키울 수 있다.

광주서구 레고교육센터 서운종 원장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공부는 놀이와 같은 개념이어야 한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 놀이를 통해 수학의 기본 개념은 물론 연산, 시간, 측정, 도형, 공간, 통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발레

춤추면서 영어 노래 흥얼 '일석이조' 학습효과 만족

2~9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발레는 영어 동요에 몸을 맞춰 발레의 스트레칭 동작 등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요는 발레 동작의 영어 단어들에 들어 있는 창작 곡이다. 클래식 발레의 경우 음악을 듣고 따라하는 반면, 영어 발레는 아이들이 직접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2년 째 맡아 영어 발레를 가르치는 서인아(42·광주시 서구 처평동)씨는 "몸이 유연해지는 발레의 장점 외에 항상 영어 동요를 흥얼거리기 때문에 교육 효과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단순 스트레칭 뿐 아니라 동화를 발레로 각색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때 거부감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30여 곳의 문화센터 등에 영어 발레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트윈발레 김주영(28) 전문강사는 "수업에서 배운 영어 동요를 집에서 틀어주면 발레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해 만족해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피아노 학원에서 영어 동요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

(주)잉글리시피아노 광주지사 제공

영화안내 Happy Time

메가박스 Megabox Day

최강로맨스

엔터시네마

파파도2

컬럼버스시네마

에라곤

대인동삼일부동산

LC타워(주)

일가공인중개사

믿음공인중개사

동부부동산(주)

토우드공인중개사

정우부동산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